

보복 없다더니... 압박하는 금감원, 버티는 삼성생명

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구제' 거부

금감원, 미지급액 규모 정확히 파악
법규 위반 여부 따라 제재 조치 검토
업계, 보험 3사서 4천억 토해낸
'자살보험금' 사태 수순 밟을 것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전경.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일괄구제' 방침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이 심의위원회 개최뿐만 아니라 종합검사 실시 등 고강도의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윤석현 금감원장이 '보복은 없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삼성생명이 사실상 금융당국에 반기를 들자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금융당국이 기관·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할 경우 삼성생명도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후 정례감사에서 삼성생명의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액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일괄구제' 권

고에 대해 거부하자 보복성 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분' 있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현 원장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와는 다른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 유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된 4300억원의 10분의 1 이하인 370억원으로, 계약 당사자 5만 5000명에게 각각 약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여전히 일괄구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도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6년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를 이유로 지급 책임이 없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음에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대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카드로 보험사들을 압박해 보험금 지급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보험 3사는 결국 4000억원을 토해냈다.

일각에서는 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원칙을 어긴 금융사만을 정해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이슈는 자살보험금 사태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 생보사들도 버티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2위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은 오는 13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가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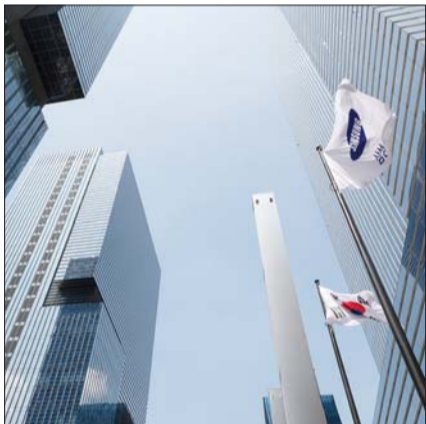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취준생 1만명에 '교육기회' 3차 협력사에 7000억 펀드

삼성의 톡큰 투자



교육장 4~5곳서 소프트웨어 교육
5년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삼성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 전자 사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투자와 고용 계획 외에 교육지원과 산학협력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청년 취업 준비생 1만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포함한 전국 4~5곳에 교육장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 해는 1000명 수준으로 시작하며 교육 기간 중 교육생에게 매월 일정액의 교육지원비가 지급된다.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삼성 관계사의 해외 연구소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일부는 직접 채용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해 청년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도 밝혔다.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랩(C-Lab)' 인사이트를 확대해 200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은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2012년 C-Lab 제도를 도입했으며 창업·분사 이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5년 이내에 복직이 가능해 삼성 내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을 비롯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적극 추진해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연간 400억원(반도체 300억원, 디스플레이 100억원) 수준인 산학협력 규모를 앞으로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 팩토리 4.0'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벤처부와 함께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2500개의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약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지난 2015~2017년 동안 중소기업 1086개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지원했는데 해당 기업 평균 매출은 5.5% 증가하고 일자리는 4600개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삼성은 1~2차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해 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3차 협력사 전용펀드(상생펀드 및 물대지원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삼성은 협력사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펀드에 4000억원, 물품대금 현금 결제를 위한 물대지원펀드에 3000억원을 각각 조성해 3차 협력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사들은 상생펀드를 통해 최대 90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시설투자, 연구개발,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물대지원펀드는 무이자 대출받아 활용 가능하다.

삼성은 2010년부터 2조300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이번에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사 지원 펀드는 총 3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은산분리 기대감에 '네이버·이마트 은행' 나오나

제3의 인터넷은행 등장 관심
신한은행, 조건부 진출 검토
증권업계, 키움증권 진출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누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4대 시중은행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한은행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고, 통신사와 유통업계도 들쭉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혁신적인 모델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된 상황에서는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전혀 없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설득작업에 직접 나서면서다. 문 대통령은 전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지금의 제도(은산분리 원칙)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주주로 있다. 나머지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적극 검토방침을 밝혔고, 하나은행은 이미 SK텔레콤과 '핀크'를 설립한 만큼 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향후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거론될 때부터 진출을 적극 검토했지만 모회사인 다우기술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산분리 규제를 넘지 못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것이며, 과거부터 성공

(은산분리 완화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고려 예상 후보군)



/자료=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적으로 이뤄온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국내 1위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에 지분을 투자했고,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을 주력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후보군으로 지목됐지만 그룹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접기로 한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네이버, 이마트 등도 후보군으로 거

론된다.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모두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법 개정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태영선생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